



조선통신사와 고구려인 기억을 찾아서 동일본 기행

일본 도쿄 주변에는 우리 선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닛코는 한일 친선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의 기억을 아직도 소중히 여기는 고장이다. 히다카와 오이소에서는 고구려 멸망 후 일본에서 새 삶을 시작한 고구려인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상이 남긴 선린과 우정의 기억을 찾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글·사진 신재우 기자

사진 / 일본정부관광국 제공

조선통신사 마지막 행선지 닛코

조선종과 삼구족을 품은 세계문화유산 ‘도쇼구’

도쿄에서 기차로 2시간 걸리는 닛코(日光)는 예로부터 ‘천하절경’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맑았으며 온천이 훌륭해 수백 년 전에도 전국에서 유람객이 찾아오는 천하 명승지였다. 도치기현 닛코시는 지금도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 이들이 닛코에서 반드시 찾는 곳 중 하나가 바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쇼구(東照宮)다. 도쇼구는 임진왜란 이후 전국을 통일하고 도쿠가와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신으로 모신다. 황금과 정교한 조각으로 치장한 건물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불교와 토속신앙이 혼합된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관이 투영된 문화유산이자 그 자체가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9년 자신의 정치 근거지였던 시즈오카에서 숨졌지만 묘는 이곳에 조성됐다. 자신의 무덤을 ‘해가 지지 않는 도시’인 닛코에 마련하라는 유언 때문이었다. 아들 히데타다가 이듬해 도쇼구를 창건했고, 손자 이에미츠가 전국에서 장인 1만5천 명을 불러들이고 금 56만 냥을 투입해 1636년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다. 이에야스는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과 가까운 닛코에서 사후에도 태평한 세상을 지켜보기를 원했다고 한다.



1 인조가 보낸 범종. 인조는 1743년 도쇼구 제의 행사 때 사용하라고 조선종을 보냈다. 2 도쇼구 본당이 눈으로 덮여 있다. 본당 안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1 눈을 감았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네무리네코'. 2 눈·귀·입을 막고 있는 원숭이를 그린 목판 조각.

도소구는 조선통신사가 세 차례나 다녀간 곳으로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다. 조선의 왕이 우호의 뜻을 담아 보낸 선물이 이예야스의 묘지 바로 앞에 전시돼 있을 정도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국교회복을 바라는 도쿠가와 막부의 청원을 받아들여 1607년부터 200여 년간 12회에 걸쳐 조선통신사로 불린 사절단을 파견한다. 통신사는 4차(1636년), 5차(1643년), 6차(1655년) 사행(使行)에서 닛코를 방문했다. 양국의 태평을 축하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조선통신사의 임무는 원래 에도(江戸·현재 도쿄)에서 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하면 끝난다. 그런데도 조선통신사가 힘든 여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닛코를 들른 이유는 막부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일본은 에도 막부의 번성을 과시하고, 조선과의 친교를 청나라에도 알리려는 목적으로 닛코 방문을 계속해서 권유했다. 통신사는 처음에는 계획이 없던 일이라는 이유로 사양했지만 당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청나라에 대한 입장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닛코행을 결심한다. 도소구에서는 쉽게 통신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화려한 건물인 요메이문(陽名門) 앞에는 조선종이 걸려 있다. 높이가 110cm, 둘레가 90cm에 이르는 이 종은 1643년 인조가 제사에 사용하라고 보낸 것이다. 막부는 조선에 종을 만들 동과 납을 보내면서까지 조선종을 선물 받고 싶어 했다. 본전을 거쳐 돌계단 200개를 올라가면 이예야스 영묘가 나온다. 가는 길에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는



이예야스의 명언이 적힌 꽃말이 꽃혀 있다. 무덤은 조선의 왕릉처럼 크지 않고 아담하다. 무덤 앞에는 향로, 화병, 촛대 등 삼구족이 전시돼 있는데 이들 역시 조선통신사의 선물이다. 도소구에서 화려한 금박 장식만큼 관광객의 관심을 받는 것은 원숭이 목판화다. 석조 도리이(전통적인 일본의 문)와 신사 입구인 오토테문을 차례로 지나면 왼편에 오래된 목조 건물이 나온다. 쇼군이 타는 백마를 사육하는 신큐사라는 건물이다. 외벽에는 원숭이 세 마리의 모습을 양각으로 표현한 판화가 붙어 있는데 눈, 귀, 입을 막고 있는 원숭이 세 마리의 모습이 익살스럽다. 이는 '뭇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일본의 처세술을 상징한다. '병어리 삼년, 귀머거리 삼년'이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하다.

이예야스 무덤길 초입에 있는 '네무리네코'(眠猫)는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조각이다. 역시 양각으로 표현된 이 작은 고양이는 눈을 감고 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다. 잠자는 척하고 있지만 온 신경을 집중해 이예야스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도소구에서 멀지 않은 이마이치(今市)에는 조선통신사가 묵었던 임시숙소 터가 남아 있다. 통신사가 닛코 방문 요청을 수락하면 숙소를 지을 목재가 에도에서 이곳까지 운반됐다. 100채가 넘는 판옥은 통신사 일행이 도착하기 1년 전 이미 완성되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통신사가 떠나고 나면 건축자재는 주민에게 분배됐다. 통신사의 방문은 이 지역에서 목재업이 번성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객관터에는 조선통신사 방문 400주년을 기념해 2007년 세운 유적비가 서 있다. 닛코는 스기, 즉 삼나무가 울창하기로도 유명하다. 이마이치 객관터 옆으로는 도소구로 연결되는 삼나무길이 있는데 키가 40m에 달하는 나무가 하늘을 가려 만드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압권이다. 400년 전에는 오로지 쇼군과 조선통신사만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일본인들은 양국에 산재한 통신사 기록물이 세계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들은 조선통신사 기록물 111건 333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예정이다. 닛코에서 조선통신사연구회 활동을 하는 야나기하라 가즈오키씨는 "조선통신사의 외교와 여정, 문화 교류에 관한 기록물은 한일 선린 우호의 상징으로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3 조선통신사연구회 야나기하라 가즈오키씨가 이마이치 객관터에서 조선통신사의 행로를 설명하고 있다. 4 도쿠가와 이예야스 무덤과 삼구족. 5 조선통신사가 지나간 삼나무길.





1 고구려인이 세운 다카쿠신사.
2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입구에서
손과 입을 닦아야 한다. 3 다카쿠신사
앞 도리이. 4 '고라이니초메'라는
지명은 고구려인이 오이소에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구려 역사가 흐르는 오이소·히다카

고구려인 첫 정착지 오이소

가나가와현 오이소(大磯)는 고구려의 왕족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정착한 곳이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도 존망의 위기에 처한 666년, 고구려 사절단이 일본 아마토 조정을 찾는다. 왕족 약광(若光)은 일본에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만 2년 뒤인 668년 평양이 함락되면서 조국에 영영 돌아가지 못했다. 조국이 멸망하자 많은 고구려인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아마토 조정은 이들을 환대하고 새로운 땅을 내어준다.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고마(高麗), 고구려 사람을 고마비토(高麗人)라고 불렀고, 후손들은 고마 성(姓)을 썼다. 오이소에 정주한 고구려인의 흔적은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인이 세운 다카쿠신사(高來神社)는 고라이니초메(高麗二丁目), 즉 고려2가에 있었다. 신사 옆에는 고려산, 고마야마(高麗山)가 있다. 다카쿠신사도 원래는 절로, 이름이 고라이지(高麗寺)였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신사로 성격이 바뀌면서 이름이 다카쿠가 됐다. 하지만 '고구려인이 세운 절'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구려인 정신이 깃든 고마 신사

사이타마현 히다카(日高)에서는 고구려인의 삶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히다카는 716년 신설된 고마군(高麗郡), 즉 고구려인을 위해 만든 도시의 중심지였다. 아마토 조정은 고마군을 세우고 시즈오카, 야마나시 등 동쪽 7개 지역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인을 불러들였다. 약광은 이주민 1천799명의 우두머리로 황

무지와 다름없던 고마군을 개척해 고려왕으로 불렸다. 히다카에는 지금도 고마역, 고마천, 고마신사, 고마소학교 등 고구려 흔적이 대거 남아 있다. 사이타마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인 고마 신사는 약광을 신으로 모신다. 입구에는 한국 옛 마을에서나 볼 법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서 있다. 공사는 60대째 고구려 후손이 맡고 있다. 26대까지는 순수 고구려 혈족이 공사를 지냈다. 신의 자손이 대대로 공사를 맡아오는 일은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공사 고마 히미야스는 “고구려인의 지도자였던 약광은 사후에 명신으로 인정받았다”며 “고마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약광에게 기도하고 그의 덕을 받으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마신사는 새해가 되면 수십만 인파로 들썩인다. 올해 정초에도 30만 명이 다녀갔다. 손과 입을 물로 씻어 정갈하게 한 뒤 분당 앞에서 두 번 절하고 두 번 박수치고 한 번 절하는 일본식 기도를 치르러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린다. 새로 임명된 주일대사가 꼭 한 번 들르는 곳도 이곳이다. 고마 공사는 “일본 역대 총리 중 6명이 이곳에서 소원을 빈 후 총리가 됐다”고 귀띔했다. 신사 뒤편에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마주택이 있다. 대대로 제사장을 맡았던 고마가의 주택이다. 59대 공사까지 실제 거주했다는 이 고택은 지은 지 400년이 넘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민가로 일본 전통의 합각지붕 구조를 갖췄다. 손님을 영접할 때는 쓰던 방과 공사 가족의 생활공간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2016년은 고마군 설립 1천300주년이 되는 해다. 신사는 고구려인의 업적을 후손에 전하기 위해 역사서 편찬, 기념 강연회, 문화재 특별전,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5 고마신사 앞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6 고마군 설립 1천300주년을 알리는
포스터. 7 고마신사에서 절을 올리는
일본인. 8 고마신사 60대 공사 고마
히미야스. 9 고마주택.





사진 / 일본정부관광국 제공

1

에도와 슬램덩크의 추억 찾는 도쿄 근교 여행

도쿄 인근에서 조선통신사와 고구려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도쿠가와 막부의 수도이자, 18세기에 이미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 '에도'의 흔적도 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콘텐츠 '슬램덩크'의 무대도 걸어볼 수 있다.



사진 / 일본정부관광국 제공

4



사진 / 일본정부관광국 제공

5

1 에노시마 전경. 2 가와고에 거리 모습. 3 에마, 소원을 적어 신사에 걸어두는 나무판. 4 가마쿠라교앞 역 역을 지나가는 에노덴. 5, 6 쓰루오카하치만구 연못과 입구 모습.

‘작은 에도’라 불리는 가와고에

사이타마현 중부에 있는 가와고에(川越)는 간토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오래된 도시’다. 도쿄에서 열차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도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곳의 별칭은 ‘작은 에도’.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지배하던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의 풍경이 이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와고에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건축물인 구라즈쿠리다. 막부는 화재를 막기 위해 벽에 흙을 칠해 내연성을 높이라고 권장했다고 한다. 사이와이초, 나카초, 모토초 거리에는 구라즈쿠리 수십 채가 남아 있다.

인사동과 전주한옥마을을 연상시키는 옛 거리에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고구마 과자와 맥주, 반찬, 도자기, 공예품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서 있다. 가와고에에서는 코에도(Coedo) 맥주를 경험해야 한다. 지역 특산 맥주로 양조 기술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다. 코에도 상점에서는 맥주를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맥주를 손에 들고 작은 에도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강백호가 사는 가마쿠라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 강백호는 가마쿠라 고교생이다. 가나가와현 가마쿠라(鎌倉)는 일본 남서쪽에 있는 작은 도시다.

에노덴(가마쿠라를 돌아볼 수 있는 전차) 노선에 있는 가마쿠라교앞역은 슬램덩크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한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슬램덩크 순례자들의 목적지는 역 근처 철길 간널목이다. 강백호가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 바다를 바라보는 애니메이션 속 한 장면은 이 간널목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가마쿠라교앞역 주변에는 특별한 명소가 없다. 그런데도 강백호를 추억하는 팬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철길 간널목을 찾는다.

가마쿠라는 12세기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된 곳으로 유서 깊은 신사가 있다. 쓰루가오카하치만구(鶴岡八幡宮)는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세운 사당으로 전쟁의 신 하치만을 모신다.

겐페이이케(源平池)로 불리는 연못 2개가 유명하다. 한 연못은 미나모토 가문, 다른 연못은 미나모토와 결전을 벌인 타이아 가문을 상징한다. 미나모토 연못에는 섬 3개가 조성된 반면, 타이아 연못에는 4개가 조성됐다. 일본에서 숫자 3은 발전, 4는 죽음을 상징한다. 연못에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를 건너면 남자는 출세하고 여자는 순산한다는 믿음이 있다.

에노덴 종점에서 내리면 일본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즐겨 하는 에노시마(江島)로 들어갈 수 있다. 에노시마는 둘레 4km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주변에 레스토랑이 많고, 요트 선착장과 전망대, 등대 등 볼거리가 몰려 있다. ▼

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



7



8

7, 8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은 가마쿠라교앞 역 근처 간널목을 배경으로 그려진 것이다.

INFORMATION

기본 정보



닛코 가는 길

닛코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도쿄에서 도호쿠 신칸센을 이용해 도치기현 현청 소재지인 우쓰노미야(宇都宮)로 가서 JR 닛코선을 갈아타야 한다. 도쿄에서 우쓰노미야역까지는 50분, 우쓰노미야역에서 도부닛코(東武日光)역까지는 45분 더 가야 한다. 도부닛코역에서 버스를 타고 니시산도(西参道)에서 내리면 도소구로 갈 수 있다.



오이소 가는 길

오이소는 도쿄역에서 JR열차로 약 한 시간 걸린다. 다카구신사에 가려면 오이소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히라츠카(平塚)역에서 내린 뒤 버스를 타고 게쇼자카나 하나미즈 정거장에서 내리면 된다. 오이소역에서 다카구신사는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다.



히다카 가는 길

신주쿠(新宿)역에서 사이쿄선 쾌속열차를 타고 50분을 달리면 종점인 가와고에역에 도착한다. 고마신사를 가려면 JR가와고에선으로 갈아타고 20분을 더 가서 고마가와역에서 내리면 된다.